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magazine

05

Vol.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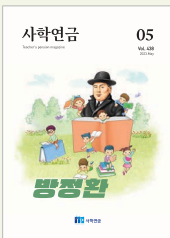
2023.May



방정환

사학연금이 만드는 매거진

사학연금



표지이야기

5월은 가족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인데요.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은 자라나는
새싹 같은 어린이를 위한 날입니다.
사학연금 5월호는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린이를 위해 노력해온
방정환에 대한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CONTENTS



정정안내

사학연금 4월호에 잘못 게재되었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4, 10쪽: 필사즉생 생필즉사(必死即生 生必生即死) →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 則生 必生則死)
- 30쪽: 태극기의 건곤감리 중 감괘(☵ → ☵) 문양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3년 5월 1일(비매물)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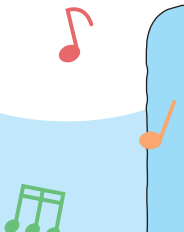
- 04 **명언**
이 땅의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를...
소파 방정환
- 06 **인물**
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다
- 08 **여행**
꿈꾸는 이들을 위한 나라, 한국잡월드
- 12 **짓다**
- '나의 행복을 위한 우선순위 찾기'
- 인생 챔피언
- 산다는 것은, 좋아하는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하는다는 것은
- 그날, 우리는

소통

- 18 **건강 식**
힘이 펄펄 솟아나는 장어구이
- 20 **인생 책**
핸드백디자이너의 가방 뜨기 비법 대 공개!
나를 위해 나만의 특별한 가방을 뜨자
- 22 **지구 인**
메말라가는 지구를 위해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할 때!
- 26 **경제 톨**
소소하지만 쓸쓸한 앱테크로
생활비도 아끼고 돈도 벌어가세요~
- 28 **이런 앱**
잡았다 요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피싱아이즈
- 30 **요즘 말**
100세 시대, 돈보다 중요한 건강
'근육연금' 챙기고 계시나요?

알림

- 32 **공단 소식**
- 사학연금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안내
- 34 **독자 마당**
- 35 **제휴 복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를... 소파 방정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날, 5월 5일! 어른들은 쉬는 날이라 좋고,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라 행복하다.
모두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한 이가 바로 소파 방정환이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방정환. 그의 말속에 담긴 어린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느껴보자.

글 유민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잔물결을 일으킨 방정환

일제 강점기 시절 문학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아호 또는 필명을 사용했다. 독립 운동가이자 아동문화운동가로 활동했던 방정환도 '소파(小波)'라는 아호와 '물결'이라는 필명을 썼다. 그의 부인이 아호가 무슨 뜻인지 물으니,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요. 뒷날에는 큰 물결(大波)이 되어 출렁일 것이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즉 선생의 아호와 필명은 그 의미가 모두 '작은 물결'로 같았던 것. 그럼 선생이 일으킨 잔물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책 읽을 여유조차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구연해주어 어린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선생이 들려주는 구연동화 속 흥미진진하고 애절한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어린이의 인권과 행복을 위하여

일제 강점기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책과 노래는 학교에서 배우는 일본 문학, 어른들이 부르는 민요뿐이었다. 조선 어린이들의 동심이 사라져간다는 생각에 안타까워하다 1923년 한국 최초의 아동문학 잡지 《어린이》를 창간했다. 아래의 글은 방정환이 잡지 《어린이》의 발행을 도왔던 조정호에게 남긴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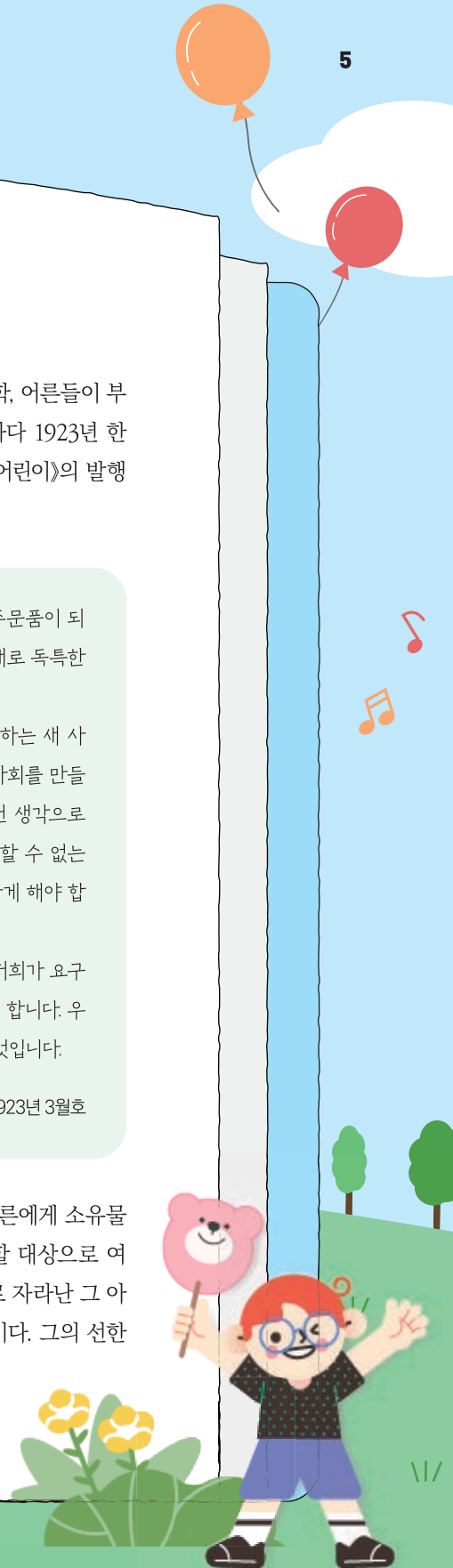
어린이는 결코 부모의 물건이 되려고 생겨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성 사회의 주문품이 되려고 낳는 것도 아닙니다. 그네는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독특한 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껏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에 새로 출생하는 새 사람들은 저희끼리의 사색하는 바가 있고 저희끼리의 새로운 지식으로 어떠한 새 사회를 만들고, 새 살림을 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현 사람들이 현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현 사회 일반을 억지로 들어 씌우려는 것은 도저히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재미로운 중에 저희끼리 기운껏 활활 뛰면서 훨씬 훨씬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이니 받으라고 무리로 강제로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주고, 저희에게서 싹 돋는 것을 북돋아 줄 뿐이고, 보호해 줄 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네에 대하는 태도는 이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항상 새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천도교회월보〉 제150호, 1923년 3월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억압받고, 가정 내에서 부모를 비롯한 어른에게 소유물처럼 여겨지며 통제 받았던 어린이들은 방정환의 노력 덕분에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의 바람대로 어린이들은 사랑 속에서 자라났고, 어른으로 자라난 그 아이들은 다시 자녀를 낳고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길러냈을 것이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많은 어린이가 사랑받게 되었다. 📖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 달려라 냇물이 푸른 벌판을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1948년에 발표된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 1절 노랫말이다. 어린이날은 5월 5일 단 하루지만, 어린이들은 한 달 내내 어린이날처럼 지낸다. 어린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린이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어린이를 깊이 사랑했던 방정환을 만나보자.

글 김민정

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다

내일의 희망, 어린이

어린이는 ‘어리다’와 ‘아이’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로 ‘어린이’를 뜻한다. 여기서 ‘어리다’는 사실 ‘어리석다’는 의미였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그러다 방정환이 어린이를 지칭하는 말로 ‘어린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든 것.

어린이가 등장하기 전, 어린이를 일컫는 말은 어른이 아닌 제삼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낮잡아 이르는 말인 ‘아해’ 정도였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열라,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어린놈, 어린애 등으로 지방마다 차이가 있기도 했다. 반면 방정환이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방정환이 이토록 어린이를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방정환이 나라와 민족의 계몽 그리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를 중요히 여겨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린이 운동의 목적은 어린이의 정서와 건전한 사회성 함양만이 아니었다. 낮은 존재였던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존중을 끌어내는, 다소 철학적인 방향의 독립운동을 꾀한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운동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호칭을 새로 만든 만큼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작점이 바로 1921년 5월 1일에 조직된 ‘천도교소년회’다. 어린이의 인격과 정서, 건

전한 사회성 함양을 목적으로 조직된 천도교소년회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표어를 내세워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린이 중심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해외의 여러 동화를 번역한 단행본 『사랑의 선물』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운동의 결실이 바로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 창립 일주년을 맞아 제정된 어린이날이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에는 국내 최초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고, 돌아오는 어린이날의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식과 함께 〈어린이선언문〉을 배포하였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중략)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어린이선언문〉中, 방정환, 1923.

즐거운 어린이날.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기념으로 배포된 〈어린이선언문〉 속 문장에 담긴 방정환의 어린이 사랑을 떠올리며 다시 어린이를 바라보자. 어린이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나라, 한국잡월드

“꿈이 뭐니?” 어른의 모습을 상상하는 아이들에게 이 물음은 즐겁고 활기찬 물음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떠 있을 이 물음표를 희망의 느낌표로 바꿔줄 만한 장소가 있다. 바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잡월드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꿈꾸는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다. 꿈과 추억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나라, 한국잡월드에 방문해보자.

글 김민정 사진 제공 한국잡월드

꿈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시대의 주인공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존재이기 때문. 그렇기에 어린이,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사회 학습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은 중요하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은 나라를 세웠다.

한국잡월드 건물은 거대한 배의 앞머리를 형상화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을 직업의 세계로 이끌어줄 견고한 철갑선 같은 모습이다. 내부에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할만한 요소들이 더욱 넘친다. 어린이 체험관, 청소년 체험관, 진로설계관, 메카이브, 숙련기술체험관이 자리해 약 1,000여 가지의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직업도 100개가 넘는다.

꿈을 향한 체험의 현장

건물의 내외부를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진로탐험의 시작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조이

태그를 받는 것이다. 1층 로비를 거쳐 2층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하면 되는데, 한국잡월드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니 도중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안내데스크 오른쪽 진로설계관으로 가면 본격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앞서 직업 심리 검사나 직업 흥미 검사, 전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몰랐던 의외의 진로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진로설계관에서 상담이 끝났다면 3층으로 이동해보자. 3층에는 한국잡월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관과 청소년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이 체험관은 48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청소년 체험관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 체험관은 42개의 체험실과 54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체험관 전체가 거대한 마을로 이루어져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몰입감을 선사해주기에 충분하다. 아이들은 4시간 동안 이곳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원하는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 체험관



어린이 체험관 해양경찰구조대



메카이브 C.라운지

66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시대의 주인공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존재이기 때문.

99


반면 청소년 체험관은 어린이 체험관보다 더 체계적이고 사실적이다. 44개의 체험실과 76개의 직종이 실제 사업 현장처럼 조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1시간 동안 이 안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역할을 연기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카이브

신나게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메카이브로 향해보자. 메카이브는 MAKERS ARCHIVE의 약자로, 만들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만나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단어다. 도구나 재료를 탐색하여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이를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 순환 속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텅커링(Tinkering)을 돕기 위해 2022년 새로 개관되었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공유하기 위한 C.라운지, 여러 도구와 장비가 모여 있는 창작 스테이션 M.스트리트, 6개의 개별 클래스로 이루어진 청년 공방 Y.클래스, 유아·어린이 전용 만들기 체험 공간인 K.그라운드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각 구역의 앞 글자를 모으면 CMYK, 즉 인쇄 잉크 체계가 된다는 포인트가 있다. 성인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메카이브에 모여 있으니 꼭 아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방문할 가치는 충분하다.

본관 바깥에 체험관이 하나 더 있다. 본관 중앙의 주 출입구로 나와 건물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 건물은 게임 요소를 활용한 미션 수행을 통해 첨단·기초·전통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련기술 체험관이다. 참여 대상자는 본관의 청소년 체험관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홍보·역사실, 2층에는 첨단 기술과 기초 기술 분야 체험실, 3층에는 전통 기술 분야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각 분야의 체험실은 다 합쳐 10개다. 2시간 동안 성과물을 직접 구상하고 제작하여 본인만의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창의 심화 체험을 제공한다. 항공 정비 기술부터 프로그래밍, 전통 공예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니 진로가 꼭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다녀와 보면 좋을 것이다. 

출처 :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문의 1644-1333
홈페이지 <https://www.koreajobworld.or.kr>

‘나’의 행복을 위한 우선순위 찾기

글 안정주(단국대학교 재직)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쌍둥이 형제, 자매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모두 다 다른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너무 비슷한 꿈을 가지고 똑같은 교실과 학원에서 똑같은 것을 배우며 정작 자신의 꿈을 모르는 채 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은 아이들의 꿈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선배들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까지 자신의 역할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대학 진학은 과정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순 없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모른 채 성적에 맞춰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즈음엔 정작 자신이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취업을 한 뒤에도 회사에서 적응을 못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며, 그것을 참고 열심히 살아왔어도 돌아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두에게는 자신의 꿈에 맞는 크기가 다른 공이 있다. 어떤 일은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공의 크기로 바꾸어 보자. 그 일을 이루는데 10년이 걸리는 크기의 큰 공, 1년이라는 중간 크기의 공, 한 달이라는 작은 크기의 공 그리고 하루라는 모래알만 한 공이 있다고 치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공을 우선 '나'의 중심에 먼저 채워야 한다. 반대로 무작정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고 나중에 꿈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라는 공간에 가장 작은 모래알들만 채워져 나중에 중간 이상 크기의 공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르다면, 순서를 바꾸어 보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 챔피언

글 송하균(서울대학교 재직)



복서만 챔피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것도 챔피언이다. 현장에서 밤낮으로 오랜 세월 쉬지 않고 일하였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즐거움이다.

남편과 아버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몸도 기계처럼 시간이 가면 녹스는 것 같다. 50대를 넘어가면서 한 곳, 한 곳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혈압이 생기더니 합병증이 생겼다. 돈 아끼려고 병원도 멀리한 죄라고 생각이 든다.


몸이 아프니 일도 싫고 만사가 성가졌다. 휴직하려고 했으나 무급이라는 말을 듣고 접었다. 봉급생활자가 무급으로 산다는 것은 가족 봉괴를 말하는 것이다. 많은 고민 끝에 아픈 몸을 이기면서 직장에 다녔다.

젊은 직원들 중에는 아픈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나 젊은 시절과 건강 하였던 시절이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다. 마스크를 끼고 민원을 상대하고 현장 근무를 한다.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힘이 들었다. 자주 호흡곤란을 느끼고 현기증까지 나타났다. 식사하면 소화가 되지 않았다. 현장 업무는 나이 들면 힘든 직업이다.

50대는 기저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 업무를 웃음으로 이겨냈다. 가끔은 직원들과 사소한 일로 인해 다툼도 벌어진다.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들었다. 두렵고 무서운 날도 있다.

현장 일을 한 지도 30년이 다가오고 있다. 바쁜 일과와 팍팍한 삶에 지친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상대하려면 건강에 매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힘들었던 병원 중환자실의 시간을 버티고 꾸준히 시간을 이기고 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아픔 뒤에 성숙해지는 것을 알았다.

건강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 권투에서 말하는 15라운드라는 직장에서 60 퇴직을 말한다. 힘들다고 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삶의 일터에서 이기는 길은 체력을 키우고 퇴직 종치는 순간까지 뛰어야 한다.

나는 삶을 산다. 현장에서 낀 모자와 장갑을 벗는 날은 정년퇴직하는 날이다. 가족에게 멋진 남편과 멋진 아버가 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챔피언이다. 

산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글 김현성(한국폴리텍V대학 재직)




산다는 것은,
달빛 아래 지친 한숨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

좋아한다는 것은,
지친 몸을 누이고
곤히 자다 문득 깬을 때
그를 떠올리는 것과 같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향해 가는 천만 번의 달빛 걸음이
한 번의 걸음처럼 가벼운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400여 년 전 그녀의 말이 그림고, 어여쁘다
그림고 어여쁘다

산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날, 우리는

글 정용수(대구영남중학교 재직)


1995년 4월 28일, 금요일
대구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영남중학교 앞 사거리
7시 52분, 하필이면 아이들 등교 시간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사라진 43명의 아이들

아수라장이 된 교실에 뛰어 올라가
아이들 출석을 확인하고
등교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칠판에 적어놓고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아이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하나 이름을 지워가던 악몽 같은 그날

끝내 지워지지 못한 이름을
차가운 영안실에서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날
병원 영안실로 다니시다
늦은 저녁 학교로 돌아오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영정 앞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우셨던 그날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교정 한 모퉁이에 세워진 추모관의 이름은
세심관(洗心館), 마음을 씻는 곳

28년이 지난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은
봄꽃이 활짝 핀 교정을 지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심관을 찾아왔다

새봄이 와도 돌아오지 않는
살았으면 사십이 넘었을 영정 속 아이들은
오늘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얼굴처럼
낮설지 않은 미소로 해맑게 웃고 있다

자식의 영정 앞에 현화하고 돌아서는
부모들의 모진 아픔을 아는 듯 모르는 듯
4월의 교정은 신록으로 여전히 푸르지만 하고
운동장엔 아이들의 활기찬 음성으로 가득한데
여태 마음을 씻지 못한 부끄러운 교사는
녹슬어 가는 洗心館 동판에 새겨진
낮익은 아이들의 이름만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다 





힘이 펄펄 솟아나는

장어구이

글 문소현



‘보양식’하면 생각나는 장어는
5월 제철 음식이기도 하다.
스태미나의 원천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은 만큼
단백질과 비타민A 함량이 높다.
기력이 약해졌다면 팔딱팔딱
힘 좋은 장어를 먹어보면 어떨까?
통통한 장어에 발린
짭짤한 양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어구이를 추천한다.



주 재료

손질된 장어 2마리, 후춧가루, 청주,
생강 1/4개

양념장 재료

간장 100ml, 청주 100ml,
복분자청 100ml, 마늘 5개,
양파 1/2개, 생강 1/2개, 통후추 5~6톨

만드는 법

1. 손질된 장어를 흐르는 물에 한 번 씻은 후 청주와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준다.
2. 밑간한 장어를 200도로 예열된 오븐 또는 프라이팬에 넣고 5분 정도 구워준다.
3. 장어를 굽는 동안 냄비에 간장, 청주, 복분자청, 마늘, 양파, 생강, 통후추를 넣고 끓여 양념장을 만든다.
4. 프라이팬에 양념장과 한 번 구웠던 장어를 넣고 장어에 양념장이 잘 배도록 졸인다.
5. 졸인 장어는 오븐 또는 프라이팬에서 5분 정도 더 구워준다.
6. 완성된 장어는 먹기 좋게 잘라 저민 생강과 함께 먹는다. [tip](#)

핸드백디자이너의 가방 뜨기 비법 대 공개! 나를 위해 나만의 특별한 가방을 뜨자

책 <핸드백디자이너의 뜨개가방>

제공 크레파스북



*본 도서는 출판사 '크레파스북'에서 협찬 받은 도서로 이벤트를 통해 5분께 증정합니다.

입문자와 숙련자를 아울러 모든 뜨개인에게 길을 안내하다

How to make, 나에게 맞는 가방을 뜨자

풍요의 시대, 물건의 '소유'보다 '특별함'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다. 대량 생산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직접 만든 물건의 매력은 사람들을 핸드메이드 열풍으로 이끌었다. 과거의 뜨개가 엄마의, 할머니의 소일거리였다면 오늘날의 뜨개는 혼자만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취미가 되었다. 그러나 능숙하게 뜨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뜨개에 대한 관심은 부쩍 늘어났지만, 특화된 참고 자료나 책은 드물다. 그래서 저자는 뜨개인이자 핸드백디자이너로서 쌓아온 25년의 노하우를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풀어냈다.

책 속에는 힘 있는 가방을 뜨는 방법, 핸드백의 여러 요소를 접목해 '나만의 뜨개가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등 저자만의 노하우를 담은 동영상상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도 실 고르는 방법, 자신과 자신의 창작물을 저작권 관련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뜨개의 기술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담았다. 이제 막 입문한 초보 뜨개인들 또한 이 책의 안내를 따라 한 코 한 코 뜨개를 한다면 뜨개의 매력을 알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핸드백디자이너의 뜨개가방』은 디자인과 용도가 다양한 30종의 뜨개가방 만드는 방법을 뜨개 실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코마사 100%를 사용한 실인 얀파스타로 색상 콤비가 돋보이도록 든 '브릭솔더백', 스트링 끈이 귀여움을 강조하는 '쁘띠마르쉐백', 가죽 느낌의 실 레더필로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그린드레스백', 젠더리스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노트북가방' 등을 땀다. 전주 한지로 만든 한지사를 사용한 '모링가쇼퍼백'은 바닥이 넓고 큼지막해 바캉스백으로 사용하기 좋으며, 네트백용 두꺼운 실인 네트안을 사용해 깔끔하고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미니텀토티백' 등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템이 가득하다.

이렇듯 다양한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과 완성품의 사진 외에도 실제로 착용한 사진을 함께 실어 독자들이 사진 자료를 참고해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



메말라가는 지구를 위해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할 때!



봄 하면 ‘따스한 날씨’, ‘벚꽃’, ‘나들이’ 등의 단어들 이 떠오른다.
그러나 ‘건조함’도 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피부가 갈라지고 입술이 부르트는 것에서
우리는 건조함을 절실히 느낀다. 이런 시기일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물이다.
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소중한 물을 아껴 써야 한다.

글 김지희

Step 1. 가정에서 물 절약하기

세수하기, 손씻기, 양치질하기, 밥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물'이다. 우리는 집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때 많은 물을 소비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물을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불편하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는 '수압 조절'이다. 수압이 강한 만큼 낭비되는 물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샤워나 세수, 손을 닦을 때 평소보다 수압을 약하게 트는 습관을 기른다면 지금보다 물을 절약하며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수압이 강한 집이라면 샤워 헤드나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그릇에 물을 받아두고 사용하는 것이다. 양치질할 때 30초가량 물을 틀어둔다면 약 6L의 물이 낭비된다. 그러나 양치 컵을 사용하면 600mL~1L만으로 양치를 끝낼 수 있다. 설거지도 똑같다. 수도를 틀어놓고 설거지할 때보다 설거지 통에 물을 받아두고 사용하면 기존 대비 약 6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설거지를 하기 전 휴지나 키친타올로 접시에 묻은 기름기나 양념을 한 번 닦아내는 것이 좋다. 그럼 소량의 물만 사용해도 뽀득뽀득한 설거지가 가능하다.





Step 2. 새는 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평소 우리가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수도요금이다. 만약 평상시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수량계에 기입된 수치를 확인한다. 이후 약 1시간가량 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치를 확인한다. 이때 수치가 올라갔다면 어디선가 물이 새는 것이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수도 시설 점검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낭비되는 물도 확인할 수 있다.

Step 3. 물발자국 줄이기

'탄소발자국', '생태발자국'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탄소발자국이란 개인 혹은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말하며, 생태발자국은 자연 자원에 대한 인간의 수요를

뜻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물발자국'도 강조되고 있다. 물발자국은 원료 취득부터 제품 생산, 유통,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린 생각보다 많은 물발자국을 남겨왔다.

2010년, 내셔널지오그래픽의 'Water Conservation Tips'는 휘발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휘발유보다 열 배 이상의 물을 소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휘발유 사용을 줄이면 탄소뿐만 아니라 물발자국도 함께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는 등 휘발유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 지역 농산물 센터 혹은 지역 상인들에게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 단계에서 소모되는 휘발유가 줄어들어 물발자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이 소비되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육류나 유제품,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66


무언가 대단히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물을 아낄 수 있다.

99

물이 소비된다. 가금류 한 마리를 기르는 데 약 340L의 물이 필요한데다, 육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수도로 흘러가면 이를 정화하는 일에도 다시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해야 한다.

커피 한 잔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원두 재배 과정부터 따지면 200L의 물이 사용된다. 커피에 설탕까지 넣어 먹을 경우에는 물발자국이 계속 찍힌다. 사탕수수는 다른 작물보다 15~20배가량의 물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작물 재배부터 공장을 가동한 생산, 배달 과정까지 물이 소모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해 본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자연의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는 받은 선물을 아껴 쓸 필요가 있다. 무언가 대단히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물을 아낄 수 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작은 꿈틀거림이 모여 큰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소소하지만 쓸쓸한 앱테크로 생활비도 아끼고 돈도 벌어가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돈 버는 세상



요즘 현대인들은
회사 일, 집안 일, 자녀 케어, 취미생활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버는 '앱테크'를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앱테크 앱(App) + 재테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돈을 버는 재테크.



“소소하지만 쓸쓸한 포인트와 쿠폰들 모아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돈을 버는 재테크, 일명 '앱테크'가 SNS에서 인기다.
설문조사, 만보기, 광고 등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소소하지만 쓸쓸한 앱테크로 용돈을 벌어볼까. 

글 유민지

일상 속 쌓여가는 포인트!



“집 앞 편의점이나 마트, 공원에서 산책할 때 걷는 것만으로 포인트가 쌓였어!”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더니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



“앱 속 광고를 넘기지 않고 끝까지 봤더니 포인트를 받았어!”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은 포인트로 오늘 커피를 사 먹었어.”

자투리 시간 동안 열심히 모은 포인트! 앱테크로 누리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정체 모를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
 어둠 속에서 호시탐탐 나의 재산을 노리는 적들에게서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이다.
 휴대폰은 '몸 밖의 장기'로 불릴 만큼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전자기이다.
 우리의 휴대폰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피싱아이즈에 대해 알아본다.

글 정미래

잡았다 요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피싱아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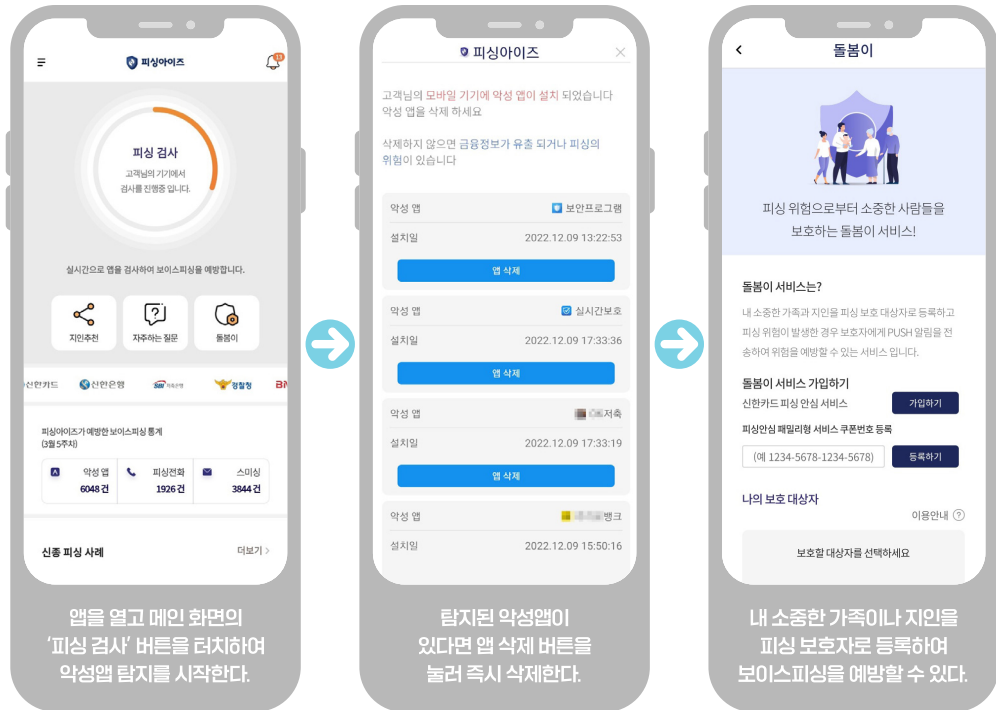
피싱아이즈란?

우리는 가끔 '00백화점 상품권 받아주세요', '00기업 면접 결과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솔깃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한다. 휴대폰 너머의 사기꾼에게 현혹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깔거나 돈을 송금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나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교활한 범죄다.

피싱아이즈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융사, 경찰청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금융사에서 출금을 차단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터치 하나로 악성 앱을 찾고 삭제까지 가능!

피싱아이즈는 설치되는 즉시 24시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휴대폰을 지켜준다. 일일이 앱을 열어 검사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악성앱이 깔리는 즉시 알람이 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The image shows three sequential smartphone screens demonstrating the Phishing Eye app's features:

- Screen 1 (Home):** Displays a 'Phishing Check' progress indicator and a 'Phishing Check' button. Below are icons for 'Self-Protection', 'Report Suspicious Messages', and 'Phishing Eye'. At the bottom, it shows statistics for installed malicious apps (6048), blocked phishing calls (1926), and blocked phishing messages (3844).
- Screen 2 (App List):** Lists installed malicious apps with details like 'Security Program', 'Real-time Protection', and 'Bank Transfer Blocking'. Each entry includes a 'Remove App' button and a timestamp.
- Screen 3 (Services):** Promotes 'Phishing Eye Protection Service' and 'Phishing Eye Protection Service Activation'. It includes a 'Sign Up' button and a 'Phishing Eye Protection Service Activation' button.

Arrows between the screens indicate a flow from the home screen to the app list, and then to the service details.

앱을 열고 메인 화면의 '피싱 검사' 버튼을 터치하여 악성 앱 탐지를 시작한다.

탐지된 악성 앱이 있다면 앱 삭제 버튼을 눌러 즉시 삭제한다.

내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을 피싱 보호자로 등록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100세 시대, 돈보다 중요한 건강

‘근육연금’ 챙기고 계시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과 건강이다. 돈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건강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요즘 미디어에서는 ‘근육연금’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즉 근육을 잘 쌓아두어 노후에 사용한다는 것.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육연금부터 챙겨보자! [▶](#)

글 유민지

근육연금



여보, 오늘 저녁 먹고 집 앞 공원에 가서 좀 걸을까요?

당신 요즘 운동 열심히 하네요?



날씨도 좋고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미리 근육도 만들어두면 좋긴 하죠!



요즘 '근육연금'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근육연금이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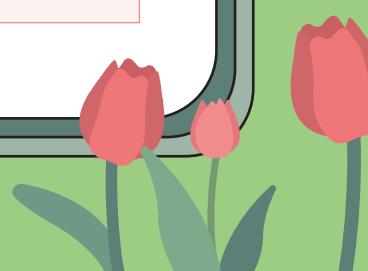


국민연금이란 똑같아요!
젊었을 때,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미리 운동과 식습관으로
근육을 잘 쌓아두었다가 나이 들어서 사용하는 거래요.

당신 말 들어보니 나도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 우리 매일 저녁 먹고 공원 한 바퀴 걷고 와요!



사학연금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①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은 같은 과세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에는 사학연금(퇴직연금, 분할연금만 해당)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 뿐만 아니라 개인이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받는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수급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내려 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③ 사학연금 과세 대상 연금소득 확인 방법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수급자는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상 ⑭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연간 3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출력
- 사학연금 홈페이지 → 로그인 →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사학연금 Dream 콜센터(☎1588-4110)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④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소득

소득종류	제외되는 소득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소득 중 2002년 이전에 납입된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은 비과세 • 공적연금소득 중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 소득이 사학연금만 있고 원천 징수한 경우 •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 제외 •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근로·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 근로소득인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 된 경우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당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당첨 금품 강제 분리과세 • 필요경비 공제 후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단, 기타소득 중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뇌물은 종합과세에 포함

⑤ 참고사항

- 가. 사학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신고 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라도 직접 장부로 증빙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 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 각종 세무 상담 등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9에 의거하여 연금수급자가 이민(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등)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자의 신분 및 거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연 1회(6월 말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신상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① [제238호 서식]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1부
- ②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③ 거주상태 확인 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해외(국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	
영주권자	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공증 必) *[세금 신고서, 병원 진료기록, 보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신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서류 발급이 불가할 때 제출] ②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② 외국인 등록증 사본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여야 하며, 입·출국이 잦은 경우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
시민권자	① 거주사실 확인서(공증 必) *[세금 신고서, 병원 진료기록, 보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신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서류 발급이 불가할 때 제출] ②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말소자	① 주민등록 재신고 후 주민등록표 초(등)본 ② 신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신분증 등)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여야 함

· 제출 방법

- 🌐 **이메일** : smile@tp.or.kr
-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7층 연금수급자팀(빛가람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FAX** : 02-2070-11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정보(수급계좌, 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고 의무를 양지하시어 정보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외에 거주 중인 연금수급자 사망 시 신고가 지연될 경우 해당 친족 또는 상속인이 뜻하지 않게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월간 <사학연금> 웹진에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①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 ②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간: 2023년 5월 10일(수)까지



월간 <사학연금>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5월 10일 마감)

코너명	코너 소개	응모 방법	독자 선물
만남 (인터뷰)	<p>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찾습니다. 6월호 테마-호국보훈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달입니다. 현충일, 6월 항쟁, 한국전쟁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이들이 있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일 텐데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이 깊고 호국보훈에 대해 관심이 깊은 선생님 또는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p>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인화 및 탁상용 액자
짓다	<p>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주제는 자유</p>	한글 파일 형태로 원고지 10매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1장)로 작성하여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화상품권 (모바일)
인생 책	<p>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해당 도서를 읽으면 좋을 만한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해당 도서를 보내드립니다.</p>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서
웹진 이벤트	<p>1. 빈칸 채우기 2. 독자의견</p>	웹진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메일 magazine@tp.or.kr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교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응모기간
2023년
5월 10일(수)



사학연금 제휴 서비스 안내(여가/생활)



사학연금 제휴서비스 중 여가·생활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제휴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히 로그인 후 이용 가능]**

구분	제휴업체	제휴혜택	예약방법	비고
항공/ 여행(4)	(주)롯데렌탈	24시간 이상 대여시 40%할인(본인) *중복할인 및 회원포인트 적립 불가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또는 전화(1588-1230)	• 유선 예약 시, 사학연금 적용코드 필요
	쏘카	대여료 주중 60%, 주말 40% 할인 *일부 차종 제외	모바일('쏘카'앱)	• 사학연금 초대장(QR코드) 사용하여 APP 이용
	에어부산	김포↔부산 구간의 실속항공권 운임에 5% 추가 할인 주중/주말/성수기/명절 등 조건 없는 추가 할인 적용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 기업우대 입직처 가입 • 기업명, 기업코드 필요
	제주항공	국내선, 국제선 전체노선의 2~5% 할인 *FLY, FLYBAG 성인 운임에만 할인 적용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 기업우대 서비스 가입 • 기업명, 기업코드 필요
레저(4)	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	일반요금 대비 30% 할인 적용 동반 3인까지 이용요금 할인	현장할인	
	이크루즈	2023년 요금표에 따라 이용(한강 크루즈)요금 할인	현장할인	• 런치크루즈, 디너크루즈는 제휴사 사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음
	파주디엠지곤돌라	일반요금 대비 20% 할인 적용(주중, 주말 동일)	현장할인	• 연중무휴 • 민간인통제구역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보안서약서 작성 필요
	한화골프클럽 (설악, 제주)	2023년 요금표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생활(5)	넥센타이어	2023년 공금가의 55% 할인 및 추가 사은품 증정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 사학연금 전용코드 필요
	나비트(KT)	사학연금 전용 휴대폰 복지물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나텔레콤(SKT)	-단말기 구입시 복지지원금 진행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가연	가입비 30%할인 미팅횟수 5회+추가 3회(기본미팅횟수 완료 후 추가 약정 시)	전화(1666-8073)	• 가입비 혜택 시 사학연금 회원 직계가족 포함
웰빙클럽	회원가입 : 공연예매,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 일부 사설 할인 멤버십 결제(개인부담) : 스포츠 또는 문화시설 할인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 멤버십 결제 시, 연금법적용확인서(재직자), 연금수급자(연금수급자)만 인정	
법률(6)	법무법인 에스엔	사학교직원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전화(02-565-9881)	서울
	법무법인 효원		전화(031-211-1234)	경인/강원
	김형배 법률사무소		전화(042-482-1933)	충청
	김정현 법률사무소		전화(062-222-0550)	호남/제주
	김섭 법률사무소		전화(053-755-7510)	대구/경북
	법무법인 국제		전화(051-242-9908)	부산/울산/경남
교육(2)	YES 24	전자도서관 1인 5권 이내, 권당 7일 대여 가능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모바일(리뉴얼 앱)	
	(주)에듀월	자격증 등 온라인 교육과정 약 30~40% 할인	인터넷(제휴복지사이트)	

※ 현장 방문 시 회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금법적용확인서, 연금수급증, 연금증서, 사학연금 압회원증, 사원증, 명함 등) 지참 필요

사학연금(TEACHERS' PENSION)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061) 338-0000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02) 769-4403~4, 4408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 042) 538-2371~2375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 051) 637-6013, 6015~6017

서울·대전·부산센터에서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통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12:00 ~ 13:00)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